

봄 '춘(春)' 나누다 '분(分)'
오늘, 봄을 나눠 드립니다.

춘분



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춘분은
농사를 시작하는 날!

일년 농사를 위해 음식을 푸짐하게
먹었습니다. 여러분도 미나리, 씨앗,
썩을 먹고 봄 기운을 충전해 봐요.

춘분에 즐기는

데 이 밥 상



미나리베이컨볶음밥

모듬어묵국

씨앗메추리알조림

배추김치

수제식혜

썩인절미

